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간의 상관성 연구*

송 영 신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자와 행정가는 간호사가 환자의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 수준을 확인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간호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개 신규간호사는 졸업 후 첫 1년 동안 실무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Pfaff, 1987), 이런 신규간호사의 적응과 부적응은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윤곽이 드러나고 이 기점이 지나면 한결 익숙하고 편안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사소한 일에도 더욱 심하게 상처받고 지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보고가 있다(Son, Koh, Kim, & Moon, 2001). 비록 3-4년의 대학과정을 통해 간호대학 학생은 평균 2년의 현장교육을 받지만 간호행위를 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단순히 관찰이나 설명위주의 교육이어서(Cheung & Song, 2006) 간호개념과 간호기술을 상호관련 지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Kang & Kong, 1997), 각 병원의 간호부서에서는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향상을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업무에 대한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은 업무성과의 예측요인이며 성취경험이 높을수록 증가하므로(Ahn, 2000),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도입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간호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추론을 이끌어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비판적 사고과정을 바탕으로 한 간호행위라 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는 인식된 대상에 대하여 건설적 회의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정신과정으로(Hwang, 1998) 태도, 지식, 기술의 복합체로 볼 수 있다(Watson & Glaser, 1964). 이는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가설적 방안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로 시험해 봄으로써 해결하는 과정으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Dewey, 1933).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사고기능의 인지적 차원인 비판적 사고기술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개인이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는 요인이며,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Lim, 2004).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력, 교과과정, 연령, 임상경력이 제시되었고, 결혼상태나 종교, 간호전달체계등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Lim, 2004). 이렇듯 인지적 과정인 비판적 사고기술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아직 병원의 사회화 과정에 있는 1년 이내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접 비판적 사고기술을 측정하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하려는 동기 또는 바램 즉, 비판적 사고성향(Kwon et al., 2006)을 확인하는 것이 이들의 개인적, 집단적 성향을 확인하는데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향만을 측정하는 것은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사고할

주요어 : 신규간호사, 비판적 사고, 간호

* 연구비 수혜: 2006년 범석학술장학재단의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1) 을지대학병원 간호부 간호교육팀장

접수일: 2008년 10월 10일 1차 수정일: 2008년 11월 10일 2차 수정일: 2008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 2009년 1월 5일

것인가' 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간호사들이 스스로 간호실무에서 필요한 도구를 찾아 어떻게 실천하는지 즉 간호실무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함께 요구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비판적사고기술이나 성향이 간호실무 능력과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지만, 둘 사이에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도 있어 이들의 연구들이 측정도구의 개선이나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Hwang, 1998).

간호실무능력은 임상에서 기능적으로 적절하며 충분한 지식, 판단, 기술, 또는 힘을 가진 상태로, 매우 광범위하며 기본적인 능력을 포함해 개인의 특성과 상황, 다양한 임상장소에서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Kang & Lee, 2001). 이러한 능력은 비슷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라 하더라도 그 수준이 다양해 간호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전에 간호실무능력을 조사하기도 한다(Lee, 2002). 신규간호사를 채용하는 병원들은 자신의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그 기관의 규정에 맞춰 신입교육을 시행하고 실제 배치된 부서에서 다시 프리셉티집 등 실무적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의 신규간호사의 실무능력이 경력간호사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존의 연구(Hwang, 1998)에서 간호전달체계나 근무부서가 아닌 연령, 임상경력, 결혼상태,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 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비슷한 신규간호사들의 간호실무능력을 다시 확인하여 비판적사고성향이나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같은 다른 요인과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간호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간호교육 개발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Specific Aims)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 대상자의 기본간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실무능력 점수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 점수 차이를 비교한다.
- 대상자의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 점수간의 상관성을 확인한다.

용어 정의

● 신규간호사

신규간호사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E 대학병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 만 1년 동안 근무한 간호사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E 대학병원의 입사 심사에 합격한 간호사중 입사 후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인 2년 7개월 동안 전체 입사자는 321명이었고 이중 1년 동안 근무를 유지한 26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들의 재직 1년 면담 시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하에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남기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

2006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매달 총 31회에 걸쳐 E 대학병원에 입사한 신규간호사가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해당 월에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시 연구목적 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26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였다. 전체 신규간호사중 1년 이내에 사직한 간호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사전에 연구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모든 자료수집절차는 E 대학병원의 간호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연구 도구

●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식의 학습과 다양한 기술의 수행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Ahn (2000)이 개발한 25문항을 Cheung과 Song (2006)이 21개 문항으로 수

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각 문항의 점수는 10점~100점으로 자신감 정도를 표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85였다.

● 비판적 사고성향

Facione (1992)이 개발한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CCTDI)를 Hwang (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했다. 본 도구는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곱가지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진실추구 8문항, 편견없음 5문항, 분석 5문항, 체계성 7문항, 비판적 사고 자신감 9문항, 호기심 많음 10문항, 성숙 6문항이며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6점, 매우 동의한다: 5점, 약간 동의한다: 4점,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83이었다.

● 간호실무능력

Jang (2000)이 개발한 간호사의 임상경력 개발모형에서의 4단계 임상등급에 따른 13개의 실무능력에 대한 96개 행동지표를 Lee (2002)가 63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본 도구는 전문성 개발력 6문항, 자원관리능력 4문항, 병동업무처리력 4문항, 윤리적 가치지향성 4문항, 협력 4문항,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능력 5문항, 유연성 5문항, 환자이해능력 4문항, 환자지향성 6문항, 임상적 판단과 대처능력 4문항, 영향력 5문항, 타인육성능력 5문항으로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언제나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능력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96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2006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268명의 자료는 SPSS wi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점수차이는 t-test, ANOVA로 비교하였으며, 제 변수간의 상관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신규간호사 268명의 일반적 특성은 최종학력과 프리셉터십 경험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학사 졸업생은 218명으로 81.4%였고, 50명은 학사로 18.6%였다. 신규간호사의 교육프로그램중 하나인 프리셉터십은 100%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N=26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3	1.1
	Female	265	98.9
Department	General ward	128	47.8
	Specialized dept.	140	52.2
Education level	College diploma	218	81.4
	Baccalaureate degree	50	18.6
Preceptorship	Experience	268	100
	No. experience	0	0
Age (years)		M=22.28	S.D=0.64

대상자의 기본간호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 분포

기본간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10점, 표준편차는 12.88점으로 나타났다. 21개 항목 중 혈당측정이 9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낙상예방활동, 욕창예방활동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응급환자대처였으며, 정맥주사, 의약품비조작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실무능력 점수 분포

연구대상자인 신규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실무능력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각각 3.01점, 3.02점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 '호기심 많음'이 3.16점, '성숙'이 3.08점순으로 높았고, '편견없음'이 2.83점, '진실추구' 2.89점순으로 낮았다.

간호실무능력의 경우 '협력'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기조절능력'이 3.18순이었다. 낮은 항목은 '병동업무처리력'이 2.51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이 '자원관리능력'이 2.71점으로 낮았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 점수 분포

최종학력에 따른 3가지 주요변수인 자기효능감(t=3.50, p=.001), 비판적 사고성향(t=10.25, p=.000)과 간호실무능력 점수

Table 2. Mean Score of Self-efficacy in Basic Nursing Practice

(N=268)

Contents	M ± S.D	Range
1. Blood sugar test	94.44 ± 8.95	50~100
2. Prevention of falls	82.87 ± 14.51	20~100
3. Prevention of decubitus ulcers	74.40 ± 16.37	30~100
4. Medical-surgical aseptic technique	74.31 ± 16.98	20~100
5. Intake/Output check	72.50 ± 17.18	0~100
6. Management of drainage tubes	70.60 ± 17.21	20~100
7. Endotracheal suction	68.25 ± 21.59	10~100
8. Self-care education	68.13 ± 14.72	30~100
9. Caring for isolation patients	65.71 ± 18.35	10~100
10. Medication	65.22 ± 18.30	10~100
11. Nursing recording	64.93 ± 17.97	10~100
12. Enema	64.66 ± 22.93	10~100
13. Physical examination	64.66 ± 14.20	30~100
14. Oxygen therapy	64.44 ± 18.56	10~100
15. Transfusion	63.36 ± 18.13	10~100
16. Indwelling catheter management	62.16 ± 22.28	10~100
17. Nursing diagnosis	61.27 ± 14.81	20~90
18. Understanding of laboratory data (results)	61.19 ± 17.20	10~100
19. Manipulation of medical devices	59.18 ± 21.84	10~100
20. I.V. (Intra-vascular) injection	59.07 ± 21.76	10~100
21. Emergency care	47.76 ± 18.46	10~90
Total	67.10 ± 12.88	30.0~94.7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Competency

(N=268)

Variables	M ± S.D	Ran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01 ± 0.42	1.67~3.86
Truth seeking	2.89 ± 0.45	1.25~4.00
Open-mindedness	2.83 ± 0.41	1.20~4.00
Analysis	3.03 ± 0.55	1.40~4.00
Systematicity	3.03 ± 0.50	1.57~4.00
Self-confidence in critical thinking ability	3.07 ± 0.44	1.78~3.89
Inquisitiveness	3.16 ± 0.42	1.70~4.00
Cognitive maturity	3.08 ± 0.42	1.83~4.00
Nursing competency	3.02 ± 0.41	1.70~3.86
Professional development power	2.99 ± 0.49	1.50~4.00
Resources management	2.71 ± 0.47	1.50~4.00
Processing ability of ward work	2.51 ± 0.46	1.25~3.75
Inclination toward ethical values	3.27 ± 0.54	1.80~4.00
Cooperation	3.37 ± 0.65	1.33~4.00
Self confidence	2.98 ± 0.45	1.57~4.00
Self-control	3.18 ± 0.56	1.80~4.00
Flexibility	3.05 ± 0.53	1.00~4.00
Understanding patients	3.33 ± 0.61	1.50~4.00
Patient service orientation	2.97 ± 0.47	1.50~4.00
Clinical judgement and measurement	2.95 ± 0.55	1.50~4.00
Influencing power	2.89 ± 0.48	1.40~4.00
Developing others	2.89 ± 0.43	1.40~4.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t=10.79, p=.000$) 차이는 세 변수 모두 학사가 전문학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4). 그러나 성별, 근무부서에 따른 점수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 점수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mparison of Self-Efficacy,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6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elf-efficacy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Nursing competency
Gender	Male	70.83± 2.53	2.99±0.39	2.98±0.40
	Female	67.93±13.02	3.12±0.33	3.14±0.32
	t/p	-.445/.656	-.810/.475	-.891/.436
Department	General ward	66.74±13.06	2.97±0.40	2.87±0.41
	Specialized dept.	69.30±12.69	3.01±0.38	3.02±0.39
	t/p	1.808/.072	.897/.371	.942/.347
Education level	College diploma	65.80±12.91	2.93±0.39	2.92±0.40
	Baccalaureate degree	72.74±11.27	3.37±0.25	3.40±0.24
	t/p	3.50/.001	10.25/.000	10.79/.000

Table 5. Correlation of Self-Efficacy,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Competency (N=268)

Variables	Self-efficacy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Nursing competency
Self-efficacy	1.0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062	1.0	
Nursing competency	.102	.989**	1.0

** p-value <0.01

연구대상자인 신규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 점수간의 상관성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으로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실무능력 점수가 높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 관계를 보였다(r=.989, p<.001)(Table 5).

논 의

인간질병의 다양화에 따라 간호현상 역시 복잡해져 간호사로 하여금 정확한 지식과 기술, 바르고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1년 이내의 신규간호사가 갖추기는 쉽지 않다. 비록 대학교육과정중 상당 부분이 임상실무로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관찰과 정보탐색 수준의 실습내용이 의사결정 능력 향상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21가지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 수준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신규간호사를 위한 올바른 교육방법과 내용을 제안하고, 이들 신규간호사의 업무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1가지 기본간호업무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점수범위 10점~100점 중 평균 67.10점으로 이는 Ahn (2000)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6점)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 (2007)의 연구(84점)보다 낮은 점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실무능력 세부영역 중 ‘병동업무 처리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Son 등(2001)은 신규간호사들이 1년 이내에 업무관련 요인에 의한

버거움과 같은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들이 경력 1년 시점에 간호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업무를 직접 시행하면서 오히려 졸업 직후 때 보다 실패경험, 두려움 등이 작용하여 자신감이 저하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Ahn (2000)과 Jung (2007)의 연구결과보다 낮은 자기효능감을 보인 것은 대상자 선정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겠다. 위 선행연구가 2년 이상인 경력간호사와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신규간호사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라면 본 연구대상자가 입사 후 1년 시점에 있는 간호사를 병동이나 중환자자실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부서에서 전수 조사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 항목 중 낮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응급상황 시 대처’, ‘정맥주사’, ‘의료장비활용’으로 신규간호사들이 대학에서 실습을 통해 획득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병원 자체 내에서 시뮬레이션 교육과 같은 임상상황과 유사한 인위적 교육환경하에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기효능감은 업무성이나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Ahn, 2000), 실무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Jung, 2007),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뿐 아니라 간호실무능력도 확인하였다.

간호실무능력은 ‘전문성개발력’, ‘자원관리능력’, ‘병동 업무 처리력’, ‘윤리적 가치지향성’, ‘협력’, ‘자신감’, ‘조기조절능력’, ‘유연성’, ‘환자이해능력’, ‘환자지향성’, ‘임상적 판단과 대처능력’, ‘영향력’, ‘타인육성능력’ 총 13개 영역으로 간호사의 간호학적 돌봄 지식이 통합적으로 발휘되는 실천능력을 의미한다.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일반간호사의 간호실무능력을 연구한 Lee (2002)의 연구에서는 ‘전문성 개발력’, ‘자원관리’, ‘병동 업무 처리력’ 영역이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본 연

구대상자인 신규간호사의 결과는 ‘병동 업무 처리력’이 가장 낮았고 ‘자원관리능력’, ‘영향력’과 ‘타인육성 능력’이 낮은 점수를 보여 일반간호사와 차이를 보였다. 즉 신규간호사들은 경험과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혼자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변 자원을 이용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의 입장을 옹호하며 환자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정서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 즉 ‘환자이해능력’, ‘윤리적 가치지향성’ 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 (200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협력이나 정서적 개입과 같은 강점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도록 돕는 지지체계나 교육체계의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가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가 필수인데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측정하였다. 그 이유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기위한 인지적 기술 즉 비판적 사고기술을 측정하기보다는 이러한 인지적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사고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들 경력 수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7가지 성향 즉 진실 추구, 편견 없음, 분석, 체계성, 비판적 사고 자신감, 호기심 많음, 성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구 결과 4점 만점에 평균점수 3.01점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해 일반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분석한 Hwang (1998)의 연구결과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7개 성향 중 ‘호기심 많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이 ‘성숙’으로 높았고, ‘편견 없음’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점수 간 차이는 있었지만 Hwang (1998)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들 세 변수간의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들의 학력과 근무부서, 프리셉터십 적용여부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대상자 모두 연령이 1~2년 차이로 비슷하고, 경력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의 교과과정, 실습병원의 특성 등과 같은 이전의 학습 환경이 이미 1년이라는 기간동안 병원에 근무하면서 신규오리엔테이션이나 프리셉터십과 같은 그 기관의 실무교육에 몰입하여 이전 대학에서 배운 교육보다 더 자기효능감, 비판적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 결혼상태, 종교, 간호전달체계는 비판적사고와 간호실무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결과(Hwang, 1998; Lim, 2004)를 바탕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와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혹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병원환경이 상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연구 할 때는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행연구 중 Howenstein, Bilodeau, Brogna와 Good (1996)은 Waston-

Glaser Critical Thinking Appraisal (WGCTA)을 이용하여 임상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를 측정한 결과 간호사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고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능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 특성 중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전문학사에 비해 학사 졸업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간호실무능력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Shin (1996)은 이러한 원인을 철학, 논리학 등의 과목이 4년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비판적 사고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과 개방적인 교수법의 활용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간의 상관성조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간호실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과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는 전략이 신규간호사에게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과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기본간호수술과의 관계가 정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Shin (2008)의 연구, 자기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Ahn (2000)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가 구체적인 간호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Shin (2008)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Ahn (2000)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Ahn (2000)의 대상자는 경력간호사였고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로 구성되어 집단 특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임상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에게 바라는 능력 및 덕목에 대해 Jang (1999)은 간호지식과 기술, 환자에 대한 관심 및 사랑, 성실한 근무태도, 이해 판단력, 원만한 대인관계, 의사소통기술, 시간관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들의 현실 충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적 요구와 육체적 노동, 야간 및 주말근무, 직업적인 책임 등 다양하고 특히 실무시작 후 6개월 동안 이런 현실충격은 간호생산성, 학습태도, 이직에 영향을 미쳐 현장 적응을 어렵게 하므로 이 시기를 극복하게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Son et al., 2001). 이에 본 연구자는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분석하여 이들 집단에게 필요한 기본간호 업무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실

무능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실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졸업 후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경력별 교육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내용은 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주입식강의식 교육이 아닌 피교육자가 스스로 문제를 도출해 내고 해결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교육방법이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입사 후 1년 미만 268명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간호실무능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10점, 표준편차는 12.88점으로 나타났다. 21개 항목 중 혈당측정이 9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낙상예방활동, 욕창예방활동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응급환자대처(47.76점)였으며, 정맥주사(59.07점), 의료장비조작(59.18점)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실무능력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각각 3.01점, 3.02점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 '호기심 많음'이 3.16점으로 가장 높았고, '편견없음'이 2.83점으로 가장 낮았고 간호실무능력의 경우 '협력'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병동업무처리력'이 2.51점으로 낮았다.
- 최종학력에 따른 기본간호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실무능력 점수 차이는 학사가 전문학사에 비해 전체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간호실무능력 점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와 간호실무능력 점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간호업무 중 정맥주사요법과 응급환자 관리 등의 영역이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에게 필요한 기본간호 업무교육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간호연구와 실무교육 및 이론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간호연구 측면
- 신규간호사의 간호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 신규간호사뿐 아니라 경력간호사, 간호관리자, 학생간호사 등 다양한 계층의 비판적사고 성향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 실무교육 측면

-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간호 실무 교육 시 응급환자대처, 정맥주사 등 낮은 자기효능감 점수를 보인 항목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 신규간호사의 비판적사고 성향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호기심과 같은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언한다.

● 간호이론 측면

- 신규간호사뿐 아니라 다양한 임상수준에 따른 간호실무능력 개발을 위한 모형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hn, E. K. (2000). *A model for clinical nurses' self-efficacy and work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 Cheung, N. Y., & Song, Y. S. (2006). Clinical Applic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for Novic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3), 334-342.
- Dewey, J. (1933).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 Boston: Health.
- Facione, P. A., & Facione, N. C. (1992).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CCTDI): Test Administration Manual*. CA: California Academic Press.
- Howenstein, M. A., Bilodeau, K., Brogna, M. J., & Good, G. (1996). Factors associated with critical thinking among nurses.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7(3), 100-103.
- Jung, M. S. (2007).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OSCE results, self-efficacy an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Hwang, J. W. (199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ang, G. S. (2000).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linical career development model of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Jang, Y. S. (1999). A study of nursing practice ability that clinical nurses expect to new graduate nurses. *Seongshin College of Nursing Thesis Collection*, 8, 25-46.
- Kang, I. W., & Lee, E. J. (2001). A study on new nurse's job

- analysis for improvement of efficiently nursing educational curriculum. *Annual Bulletin of Kacheon Gil*, 29, 59-73.
- Kang, K. S., & Kong, E. S. (1997). A study on the content of fundamentals of nursing in Korea-Focused on nursing professors and clinical educa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1), 83-95.
- Kwon, I. S., Lee, G. E., Kim, G. D., Kim, Y. H., Park, K. M., Park, H. S., et. al. (2006).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950-958.
- Lee, M. J. (2002). *A study of factors related to clinical competency in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im, E. J.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ritical thinking skill in clinic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faff, J. (1987).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dissatisfaction of registered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Nursing Management*, 18(8), 51-55.
- Shin, E. J. (2008).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15(3), 380-386.
- Shin, K. R. (1996). A study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associate and baccalaureate degre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1), 43-52.
- Son, H. M., Koh, M. H., Kim, C. M., & Moon, J. H. (2001). The clinical experiences of adaptation as a new nursing staf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6), 988-997.
- Watson, G., & Glaser, E. M. (1964). *Critical thinking appraisal manual*.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A Correlation Study on Self-Efficacy,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Competency of New Nurses*

Song, Youngshin¹⁾

1) Team Leader of Nursing Education, Eulji University Hospit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elf-efficacy,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and level of nursing competency in new nurses and to exam the correlation among these variables. **Method:** The sample was composed of 286 new nurses who had worked at E hospital for 1 year. Descriptive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the SPSS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mean score for self-efficacy was 67.10,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3.01 and nursing competency, 3.0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for 3 variables between nurses with College degrees and nurses with Baccalaureate degree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competency scores. **Conclusion:** Further study of the various components that influence nursing competency is necessary. Also based on the disposition to critical thinking,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to strengthen curiosity and other 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clinical model of nursing competency ability.

Key words : Thinking, Nurse, Practice, Nurs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BumSuk Academic Research Fund of 2006.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Youngshin

Team Leader of Nursing Education, Eulji University Hospital

1306 Dunsan-dong Seogu, Daejeon 302-799, Korea

Tel: 82-42-611-3731 Fax: 82-42-611-3739 E-mail: sys@eulji.ac.kr